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94

▶ 95회 예고
아쇼까왕은 또 다시 삼보디 순례를 준비한다. 이에 띠쉬아락시따 정비는 삼보디 삡팔라나무를 없애버리고자 음모를 꾸민다. 그러나 발각되어 화형을 당한다. 6년 뒤 꾸날라의 아들 삼빠딘은 병석에 누운 아쇼까왕으로부터 왕권을 탈취한다.



# 담마사절단, 이웃나라로 떠나다

건기인데도 소나기가 한바탕 쏟아졌다. 빗방울이 굵고 짧은 소나기였다. 소나기가 뚝 멈추자마자 지평선 가까운 하늘에 쌍무지개가 떴다. 목갈리뿟다띳사는 내일 담마사절단들이 각국으로 떠나는데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도 하늘이 축복을 내리는 것이라고 환호했다.

아쇼까왕은 담마사절단의 활동이 성공하기를 누구보다도 원했다. 그런 바람으로 담마사절단을 파견하기에 앞서 두 가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다. 하나는 이웃나라 왕들의 환심을 끌어내기 위해 그 나라 지방에 사람과 동물을 치료하는 의료진료소를 지어주었고, 두 번째는 상인들이 넘나드는 국경지방에 다음과 같은 바위칙령을 새기게 했다.

〈나 자신의 자녀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나는 모든 사람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염원한다. 국경 너머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왕의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를 정복하지는 않을까?'

그러나 나의 유일한 의도는 그들이 나를 믿고 나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는 것이며 그들에게 불행이 아닌 행복을 주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웃나라에 복지를 지원하는 한편, 바위칙령을 통해 침략하지 않겠다고 왕의 이름으로 약속함으로써 담마사절단이 가더라도 이웃나라의 왕이나 백성들로부터 환대받게 하자는 것이 아쇼까왕의 의도였다.

다음날.

목갈리뿟다띳사는 아침 일찍 왕궁으로 가서 아쇼까왕에게 보고했다. 마힌다는 전날 인사를 미리 했으므로 따라가지는 않았다. 아쇼까라마에는 아쇼까왕이 하사한 대왕코끼리 두 마리가 점잖게 대기하고 있었다.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산치까지 타고 갈 대왕코끼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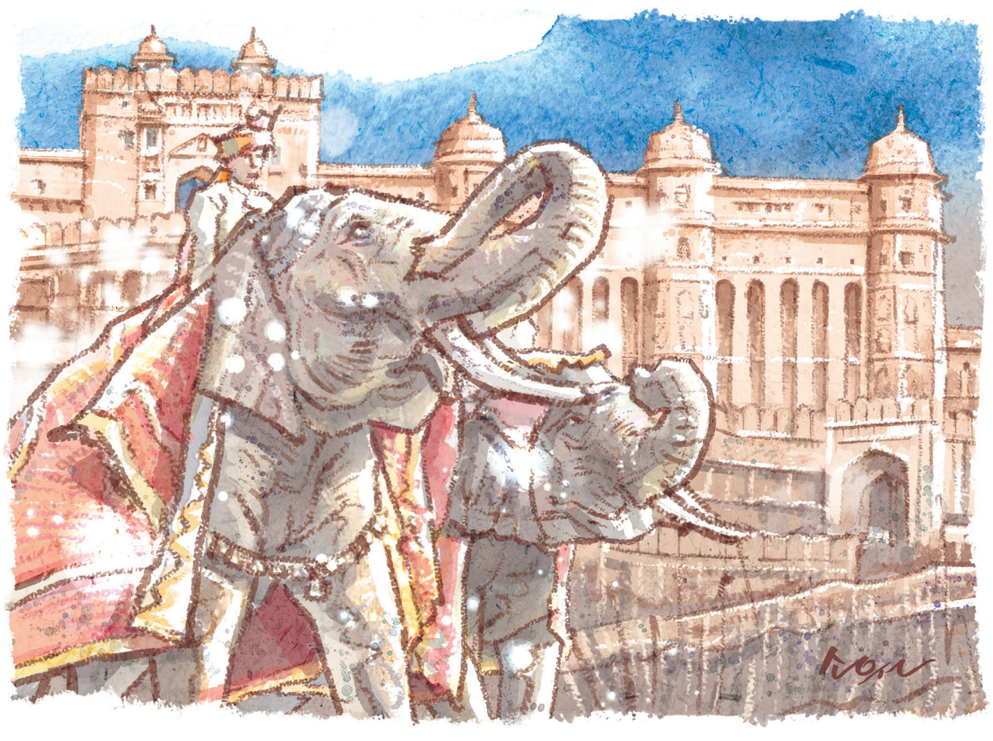
마힌다는 땅바빵니 담마사절단 대표였다, 장로는 아니지만 상가밋따의 아들인 수마나 사미도 땅바빵니 담마사절단과 동행하기로 했다. 땅바빵니 담마사절단 및 각국의 담마사절단들 앞에서 목갈리뿟다띳사가 말했다.

"장로들은 오직 세상사람들에게 헌신한다는 자비심을 내어 이웃나라로 가서 훌륭한 담마를 열정적으로 전하고 가르치시오."

마힌다 옆에는 담마사절단을 이끌고 간다라와 까슈미라로 가는 맛잔띠까(Majjhantika) 장로가 앉아 있었다.

"담마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경지방 사람들과 6백 요자나의 거리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나라들까지 담마사절단들에 의해 퍼져나갈 것이오. 대왕님은 오래 전에 전쟁터의 북소리로, 무력으로 이웃나라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하시었소. 그러나 담마에 의한 정복은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포기하지 않을 것이오. 따라서 이웃나라 왕과 백성들은 담마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살게 될 것이오."

각국의 담마사절단이 아쇼까라마를 벗어나자, 빠딸리뿌뜨라의 모든 성민들이 거리로 나와 장로들의 목에 꽃목걸이를 걸어주며 전송했다. 아쇼까왕은 늙은 마하데바라 수상과 함께 미리 강가 강변에 나와 임시군막에 있었다. 환송연을 위한 임시군막이었다. 마하데바라 수상은 깔링가국 정벌 때만 해도 왕성하게 활동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그렇지 못했다. 건강 때문이기도 했지만 실제적인 이유는 아쇼까왕과의 잦은 이견 때문이었다.



아쇼까왕은 그때를 정확하게 기억했다. 아쇼까왕 군대가 깔링가국을 정벌하고 나서 15만 명의 포로로 끌고 온 뒤였다. 아쇼까왕과 마하데바라 수상, 그리고 군부대 대장들이 포로들을 어떻게 할지를 놓고 회의하는 자리였다. 아쇼까왕은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선언했으니 포로들을 풀어주고 싶어 했다.

"나는 다야강에서 북소리를 멈추고 담마의 정복자가 되기로 맹세한 왕이오. 15만 명의 포로들을 풀어주는 것도 담마를 실천하는 일이오. 60만 군대까지 해산한다면 나는 진정한 담마의 실천자가 되는 것이오. 수상의 생각은 어떻소?"

"대왕님이시여, 모든 일에는 원인과 결과가 있는 법입니다. 깔링가국 정벌 때 우리 군사들이 많이 희생했습니다. 그 결과로 포로들을 데리고 온 것입니다. 포로들은 희생당한 군사를 대신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석주를 운반하고, 도로를 닦고, 우물을 파고, 약초밭을 일구는 등의 일은 포로들의 몫입니다."

마하데바라가 반대하자, 들떠 있던 자축 분위기가 금세 가라앉았다. 경비대장이나 코끼리부대 대장도 마하데바라의 반대의견에 동조하는지 침묵하기만 했다. 아쇼까왕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는 국경지방 바위에 이웃나라를 정벌할 의도가 없다는 칙령을 새겼소. 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에 의료진료소를 세워주고 약초밭을 일구어주었소. 그러니 이웃나라 왕들이 나를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을 것이오."

"나라와 나라 사이는 호의만 가지고 평화가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빈틈이 생기면 반드시 우리를 정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약육강식의 불문율입니다."

"담마의 정복자가 되겠다는 나의 의도는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이오. 군대를 해산하지 않고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고서야 어찌 담마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겠소?"

이에 마하데바라가 소리 내어 울면서 하소연했다.

"대왕님시여, 늙은 저는 깔링가국 정벌이라는 소망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대왕님께서 포로를 풀어주고 군대를 해산하시겠다는 말씀에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을 것 같습니다. 군대를 해산하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이웃나라의 왕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하데바라가 자신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듯 완고하게 나오자 아쇼까왕이 이맛살을 찌푸렸다가 펴면서 말했다.

"좋소. 수상의 의견을 참고해 미구에 결정하겠소."

"대왕님이시여, 이제는 정말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코끼리부대 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왕님이시여, 수상님의 의견을 어떻게 참고하시겠습니까?"

"담마사절단을 파견해 본 뒤 결정하겠소. 이웃나라 왕들이 담마사절단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보면 그들의 마음을 알 수 있지 않겠소?"

아쇼까왕의 고집도 마하데바라처럼 강했다. 담마사절단을 받아들이는 이웃나라 왕들의 마음을 확인한 뒤 군대해산을 결정하겠다는 것이었다. 마하데바라는 더 이상 자신의 주장을 말하지 않았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군대해산을 유예시킨 것만도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담마사절단을 환송하는 임시군막에는 아쇼까왕과 마하데바라 말고도 왕실 왕족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다. 아상디밋따 정비와 띠쉬아락시따 왕비, 상가밋따 장로니, 삼빠딘 등이 아쇼까왕 뒤에 앉아서 담마사절단을 기다렸다. 왕궁악단이 연주를 시작하자 환송연은 시작부터 달아올랐다. 북소리와 현악기들의 합주가 강가강 너머로 울려퍼졌다.

이윽고 대왕코끼리 두 마리가 나타났다. 대왕코끼리는 아쇼까왕만 이용할 수 있는 특별한 짐승인데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가 하사받아 타고 있었다. 대왕코끼리 뒤로는 담마사절단인 수십 명의 장로들이 합장한 채 걸어오고 있었다. 뿐만 아니었다. 아쇼까라마에 상주하는 수만 명의 사문들이 〈초전법륜경〉을 외며 따라왔다. 강가강에 모인 성민들이 일시에 꽃을 뿌리고 박수를 쳤다.

이윽고 아쇼까왕이 임시군막에서 나와 맨 먼저 도착한 목갈리뿟다띳사와 마힌다의 땅바빵니 담마사절단을 맞았다.

"목갈리뿟다띳사 장로여, 나는 오늘을 기다렸소. 담마사절단의 장로들은 담마의 정복자인 나의 진정한 군대요. 세상을 담마가 넘쳐나는 땅으로 만들어주시오."

"대왕님이시여, 담마의 군대는 이웃나라는 물론이고 지중해 연안의 나라 에피루스, 마케도니아, 키레네, 이집트, 시리아까지 갈 것입니다. 저희들은 국내에 있는 담마마하마따와 다를 것입니다. 저희들은 담마도 가르치고 대왕님께서 주신 외교적 임무도 다할 것입니다."

"오, 장로여. 그대도 떠나기로 한 것이오?"

"아닙니다. 저는 원래대로 산치까지만 갔다가 대왕님께서 명하신바 그곳의 석주와 탑 조성을 감독한 뒤 돌아올 것입니다."

마침내 아쇼까왕이 임시연단에 올랐다. 그러자 왕궁악단의 연주가 멈추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의 장로들을 보고 외쳤다.

"장로들이여! 나는 전쟁터의 북소리를 담마의 북소리로 바꾸었소. 장로들이여, 그대들은 나라와 나라 간에 우호를 위해 선발돼 가는 사신이오. 그러나 외교만을 위한 사신이 아니라 특별하고 훌륭한 사신들이오. 담마를 가르치고 담마를 전하는 임무를 띠고 있기 때문이오. 그대들을 나는 담마로 무장한 장수라고 부르겠소."

이번에는 마힌다가 전체 담마사절단을 대표해서 말했다.

"대왕님이시여, 저희들은 대왕님의 뜻을 받들어 담마를 전하는 데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대왕님께서 담마의 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열정과 헌신과 희생을 다하겠습니다."

빠딸리뿌뜨라 성민들이 담마사절단 장로들에게 다가가 노란색 꽃으로 만든 꽃목걸이를 걸어주고 짬빠나무 흰꽃을 뿌렸다. 허공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처럼 환송연 자리가 하얗게 변했다. 이윽고 담마사절단 장로들은 각자 정해진 배로 가서 승선했다. 그사이에 마힌다는 병색이 더 깊어진 아상디밋따에게 다가가서 합장을 했고, 상가밋따는 마힌다를 따라가는 수마나를 찾아가서 손을 잡았다.

"수마나여, 나도 곧 땅바빵니로 갈 것이다."

"어머님은 왜 늦으시나요?"

"땅바빵니 사신들에게 삼보디(보드가야)의 삡팔라나무 가지를 꺾어가기로 약속했단다."

"예, 기다리겠어요."

아쇼까왕은 배들이 떠나기 전에 대왕코끼리를 타고 곧 왕궁으로 돌아왔다. 총애하는 삼빠딘에게 지시할 건이 있었다. 상가밋따가 삼보디로 갈 때 동행해서 신변을 보호하라는 지시였다. 상가밋따가 여성장로이므로 신변보호에 신경을 더 써야 했다. 뿐만 아니라 아쇼까왕은 이미 배를 타고 떠난 담마사절단 장로들의 건강도 걱정했다. 아쇼까왕이 마하데바라에게 말했다.

"수상이여, 담마사절단 장로들 중에 병이 나서 돌아오는 이가 생길지 모르겠소."

"대왕님이시여,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다섯 명보다 많은 숫자를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목갈리뿟다띳사 수석장로가 나에게 건의한 바 있소. 발병뿐만 아니라 불가피한 일이 생겨 전법을 포기하는 장로가 있을 것이니 담마사절단의 인원이 다섯 명보다 많은 열 명은 돼야 한다고 말이오."

"대왕님이시여,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쇼까왕이 담마사절단에 대해서 거는 기대는 누구보다도 컸다. 담마사절단이야말로 자신이 꿈꾸었던 담마의 정복자를 실현시켜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계속〉

